

http://dx.doi.org/10.17703/JCCT.2022.8.6.89

JCCT 2022-11-10

## 영상매체에 나타난 김수영 이미지 연구 -드라마 <명동백작>(2004)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age of Kim Soo-young in the Media -Focused on the drama "The Count of Myeong-dong"(2004)

손미영\*

Son, Mi-young\*

**요약** 본 연구는 드라마 <명동백작>(2004)을 통해서 드라마가 시인 김수영과 그의 문학작품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전략을 검토한다. 이 드라마는 김수영 시인이 내적 갈등을 겪는 장면에서 시를 삽입함으로써 시인의 내면과 그의 문학관을 보여주는 한편으로, 비교적 일반에 덜 알려진 시를 제시하여 대중들의 시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또한 드라마는 갈등 요소를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지하며, 그 갈등이 그의 삶과 시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이로써 드라마는 김수영을 단순히 「풀」의 시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활인이자, 전쟁에서부터 4.19혁명까지 복잡한 역사적 시대를 살아간 의지의 시인으로 형상화한다. 그러므로 드라마 <명동백작>은 영상을 통하여 당대의 역사적 전환과 사회 문제, 당대의 문학장과 함께 김수영이라는 한 사람의 시인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한 의미 있는 텍스트이다.

**주요어** : 문학, 시, 드라마, 드라마 <명동백작>, 김수영, 통섭, 표상, 이미지, 형상, 표상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strategy of delivering the drama's poet Kim Soo-young and his literary works to the public through the drama <The Count of Myeong-dong> (2004). This drama shows Kim's inner self and his literary view by inserting poems into scenes where the poet suffers internal conflict, while presenting relatively less well-known poems to broaden the public's understanding of poetry. In addition, the drama maintains viewers' interest by properly placing elements of conflict, and effectively shows how the conflict affected his life and the world of time. Therefore, the drama <The Count of Myeong-dong> is a meaningful text that embodies a poet named Kim Soo-young in three dimensions along with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and social problems of the time and the literary chapter of the time through the video.

**Key words** : Literature, Poem, Drama, Korean Drama, <The Count of Myeong-dong>, Kim Soo-young, Convergence

#### I. 서론

김수영은 우리에게 「풀」의 시인이자 시와 행동을 통해 시의 현실 참여 문제를 실천적으로 보여준 시인으로 평가된다.[1] 특히 그의 시는 어렵지 않은 시어와 상징

으로 당대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한편으로, 민중과 생명력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시의 전략은 김수영이라는 한 시인이 그가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을 시사한다. 즉, 김수영에게 시와 시인이란 당대의 사회에 대하여 노래함으로써 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는

\*정회원, 광운대학교 인제니움학부 (단독저자)  
접수일: 2022년 9월 16일, 수정완료일: 2022년 9월 30일  
게재확정일: 2022년 10월 20일

Received: September 16, 2022 / Revised: September 30, 2022  
Accepted: October 20, 2022

\*Corresponding Author: myshon@kw.ac.kr  
Dept. of Ingenium, Kwang woon Univ, Korea

한편으로 문학적 아름다움에 관한 청신한 감각을 독자들에게 제시하는 소통의 한 방법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은 해방에서부터 한국전쟁, 그리고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 이후의 1960년대 현실에 이르는 굴곡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수영의 자기 풍자는 지식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적인 상황과 정치적 억압에 대한 울분을 감추고 있다.[2]

그렇다면 영상물에서 세계를 향해 발언하고자 하는 양심 있는 지식인인 김수영은 어떻게 표상화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고는 드라마 <명동백작>에 주목한다. 2004년에 제작된 EBS 드라마 <명동백작>은 전쟁직후부터 1960년에 이르는 이른바 ‘전후’의 문학장과 당대 사회에 관하여 포착한다. 기존 논의가 주목한 바대로 이 드라마에서는 김수영 시인을 중심으로 하여 당대의 문인들에게 문학이란 무엇이며, 또한 ‘문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였는가에 관해 보여준다.[3] 문학과 사회적 맥락이 서로 소통하고 세계를 향해 문학이 발언한다는 측면에서 김수영 시인을 중심으로 이 드라마가 전개되는 것은 매우 유효한 서사적 효과를 보여준다.

EBS의 문화사 시리즈 <명동백작>은 교육방송으로서의 EBS의 정체성과 교육방송의 참신하고도 흥미로운 시도로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이는 EBS가 서사화의 방식으로 시인과 한국전쟁 직후의 문학장을 형상화하여 대중성을 확보하는 한편으로, 교육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자 한 시도로서 <명동백작>의 의의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3]~[4] 특히 이 드라마는 김수영 시인을 중심으로 하되, 1950년대 전후의 한국사회와 명동, 그리고 전해린과 같은 여성 문인을 포함한 다양한 작가들을 조명함으로써 1950년대 한국문학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으로 일반의 흥미를 모았다.[5] 이 중 중심 인물이라 할 수 있는 김수영은 해방에서 전쟁을 거쳐 4.19에까지 나아가는 변화의 역사적 시간 속에서 한 사람의 문인이 어떠한 선택을 하며, 또한 어떠한 글을 창작하는가를 보여준다.

이 드라마가 김수영이라는 한 사람의 중심인물을 통해 보여주는 궤적은 김수영의 시세계가 구축되기까지의 고통과 그 근원적 에너지를 형상화하는 과정이며, 또한 더 나아가 김수영 시의 이해와 지평을 일반에 널리 알리는 의미 있는 과정이다. 따라서 본고는 드라마 <명동백작>을 중심으로 영상물인 드라마가 김수영 시를

전달하는 방식과 드라마 속의 인물을 통해 김수영이라는 실존하는 시인을 이미지화하는 방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문자 텍스트인 시가 영상 텍스트와 통섭함으로써 시인을 이미지화하고 한국문학을 의미화하는 과정을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 II. 김수영 시와 드라마의 장면 분석

### 1. 시인의 내적 갈등을 표현하는 시

드라마 <명동백작>에는 1950년대의 문인들이 대거 등장하며, 이들의 시 작품 또한 활용된다. 중심인물인 김수영의 시편은 그의 생애와 함께 제시되어 시청자로 하여금 시인의 시세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드라마에서 제시되는 김수영의 시는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해방 직후의 김수영의 시세계와 <신시론>, 그리고 박인환을 비롯한 당대 시인들과의 관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편들이다. 예를 들면 초기에 쓰였으며 <신시론> 동인들의 시집인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에 실린 「공자의 생활난」과 1959년에 발간한 첫 시집의 표제작인 「달나라의 장난」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시는 주로 명동을 배경으로 김수영이 박인환이나 김관식과 같은 인물과 마주할 때에 등장한다.

특히 「공자의 생활난」은 드라마 <명동백작>의 초반부에 등장한다. 명동의 술집에서 박인환과 김경린, 김수영과 같은 <신시론> 동인들이 모여 시를 읊는다. 이때 박인환은 자신의 시인 「열차」를 읊고, 김수영은 그의 시에 화답하듯 자신의 시 「공자의 생활난」을 읊는다. 이 때 드라마의 분위기는 따스한 색감으로 이들을 비춘다. 시인들의 태도나 표정에서 젊은 시인들의 낭만과 꿈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카메라는 이들의 눈빛이나 표정을 클로즈업한다. 주광등 빛의 화면 색조 또한 이들이 시를 읊고 토론하는 순간을 마치 환상에 잠긴 것처럼 비취 아련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분위기 덕에 이어지는 김수영과 박인환의 논쟁 역시 그들이 서로를 향한 돈독한 애정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음이 드러난다.

주지하다시피 모더니스트 시인의 전형인 박인환의 시세계는 김수영의 후기 시와는 그 궤를 달리한다. 그러나 해방 이후의 <신시론> 동인 활동을 비롯하여 마리서사에서의 김수영과 박인환의 일화 등은 존중과 애정을

바탕으로 하는 두 시인이 친밀 관계에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드라마 <명동백작>에서도 김수영과 박인환의 관계는 애정을 바탕으로 하지만 서로 다른 문학관에 의해 의견이 어긋나는 사이로 그려진다. 예를 들면 초기 시인 「공자의 생활난」을 읊는 장면에서도 김수영은 박인환의 시를 '센티멘탈리즘'으로 비판한다. 그러나 드라마의 초반부에 해당하는 이 장면에서는 서로 “개똥이다”라고 외치며 웃음을 터트리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따스한 조명 아래 웃음소리가 왈작하게 퍼지는 장면은 두 시인의 관계가 반목하되 애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드라마 <명동백작>의 한 장면  
 Figure 1. A scene in a drama <The Count of Myeong-dong>

두 번째는 김수영의 인생과 문학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활용되는 시편들을 들 수 있다. 이 시편들은 주로 전쟁 직후인 1951년에서 1958년 사이에 쓰여진 시들로 구성된다. 조금 더 세분화하면 김수영의 개인적인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시편들과 무엇을 써야 하는가에 관한 고민을 지속하고 있을 때의 시편들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의 아내 김현경과의 일화는 김수영의 생애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내용일 것이다. 드라마는 1화에서부터 포로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김수영의 처참한 모습과, 그가 죽었다는 오해 끝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된 아내 김현경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후 김수영이 김현경을 그리워하는 한편으로 괴로워하는 장면에서 시 「너를 잃고」가 제시된다.

니가 없어도 나는 산단다  
 억만 번 니가 없어 설위한 끝에  
 억만 걸음 떨어져 있는  
 너는 억만 개의 모퉁이다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꽃들  
 그리고 별과도 등지고 앉아서  
 모래알 사이에 너의 얼굴을 찾고 있는 나는 인제  
 너가 없어도 산단다

-「너를 잃고」 일부[6]

드라마는 이 시와 함께 괴로워하던 김수영이 집필하는 모습을 비춘다. 시는 드라마의 내레이터의 목소리로 낭송되며 그의 음성을 통해 전달되는 시는 괴로워하는 김수영의 모습과 함께 제시되어 그의 내적 갈등을 보여준다. 즉, 시 「너를 잃고」는 시인의 감정적 변화와 그 괴로움이 다시 시작(詩作)으로 승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데에 효과적으로 기여한다. 내레이터의 목소리로 담담하게 제시되는 시의 문장들은 그대로 김수영 시인의 내적 갈등을 그대로 전달하는 동시에 시인의 삶과 그의 시창작에 대해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 드라마에서 내레이터는 서사를 설명하고 의미화하는 동시에 창의성과 텍스트성을 약화시키는 약점을 노출하기도 하지만,[4] 시청자들에게 시대적 상황과 실제 시인 및 시 텍스트에 대한 이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5] 그러므로 시인 역할의 배우가 아닌 내레이터가 시를 낭송한다는 것은, 드라마 안의 김수영의 서사에 몰입하면서도 실제 시인의 생애와는 일정한 간격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어지는 집필 장면은 시인의 삶과 창작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자연스럽게 제시한다.

이처럼 <명동백작>은 시인 김수영이 내적 갈등을 겪거나 삶의 변화가 있을 때에 시를 삼입함으로써 시인의 삶에 대한 공감을 높이는 한편으로 삶과 문학이 연결되는 순간들을 부각한다. 마찬가지로 반공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었던 1950년대 후반의 한국사회에서 무엇을 시로 써야 하는가에 관한 그의 고뇌를 드라마는 시와 함께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드라마는 김수영의 아내인 김현경의 목소리로 그의 시를 처음 제시한다. 김현경은 김수영의 시를 읊으며 자신의 시에서 가치를 찾아내지 못하는 그를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운다. 이 때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제시되는 시는 「채소밭 가에서」이며, 이 시는 잠을 이루지 못하던 김수영이 고뇌하는 순간에 또다시 제시된다.

기운을 주라 더 기운을 주라  
 강바람은 소리도 고롭다

기운을 주라 더 기운을 주라  
달리아가 움직이지 않게  
기운을 주라 더 기운을 주라  
무성하는 채소밭 가에서  
기운을 주라 더 기운을 주라  
돌아오는 채소밭 가에서  
기운을 주라 더 기운을 주라  
바람이 너를 마시기 전에

- 「채소밭 가에서」[6]

모두가 잠든 밤, 잠들지 못한 김수영은 홀로 닭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내적 갈등을 고백한다. 독백으로 제시되는 그의 대사는 자신이 정말 쓰고 싶었던 것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있었던 이야기, 즉 반공과 친공으로 양분화된 현재에 대한 비판임을 밝힌다. 그에 더해 그는 잠든 아내의 모습에서 애정과 분노라는 이중의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고백한다. 하지만 “당신이 죽이고 싶도록 미워.”라는 그의 대사는 이내 “쓸거야. 나는 절망이 아니라 힘차고 빛나는 생명을 노래할 거야.”라는 감정으로 변화한다. 이어 시인의 목소리를 통해 시 「채소밭 가에서」가 다시 낭송된다. 특히 반복되는 시의 구절 “기운을 주라”는 시인의 내적 갈등과 그 갈등을 시로 승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시인의 대사로 전달되었던 “힘차고 빛나는 생명”은 이 시의 부분인 “기운을 주라”가 그의 개인사적 슬픔과 당대 사회에 대한 고뇌를 자양분으로 하여 피어난 생명력에 대한 의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다.

즉, 드라마 <명동백작>은 전쟁 직후의 한국문학 지형을 자연스럽게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시를 제시한다. 특히 인물이 내적 갈등을 겪을 때에 제시되는 시들은 그 고뇌와 괴로움이 시인의 시세계에 깊이 녹아있음을 시청자로 하여금 자연스레 이해하도록 한다. 이로써 그 고뇌의 흔적들과 가치관이 어떻게 시편들을 구성하게 하였으며, 왜 그가 생명에 대해 쓰는 시인인지를 보여준다. 게다가 「채소밭 가에서」가 제시되는 순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비교적 덜 알려진 김수영 시의 내부에 자리한 생명력과 의지의 감성을 서사와 함께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2. 4.19와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밀셋개로 하자」

드라마 <명동백작>은 실존하는 인물들의 삶과 그들의 문학 세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드라마는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배경 속에서 문학작품이 어떻게 창작되었는가를 보여주고, 한 편의 작품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함께 김수영 시인의 세계관을 동시에 제시한다. 그러므로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배경 속에서 문학 작품이 어떻게 창작되었는가를 보여주고, 한 편의 문학 작품이 지닌 역사적 의미의 시인의 세계관을 동시에 제시한다. 이 드라마가 다루고 있는 시대적 배경은 전쟁 직후부터 1960년대 초까지이다. 회상을 통해서 해방이나 전쟁 중의 에피소드가 삽입되기는 하지만 드라마의 주요 서사는 전쟁 직후부터 1960년 초, 1961년의 5.16 군사정변 직후까지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드라마의 초반에는 주로 전쟁 직후 한국사회가 얼마나 황폐화되었는가를 이봉구를 통해서, 중반부에는 반공을 빌미로 독재권력을 이어나가는 현실과 이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를, 그리고 21회에서는 투표 조작과 이어지는 4.19 혁명의 과정을 드라마 속의 인물들을 통해 보여준다.

<명동백작>은 김수영의 시세계와 그의 삶에서 ‘민중’과 ‘자유’가 어떤 의미였는가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제시한다. 당시 사회와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김수영의 생각은 그가 이봉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드러난다. 김수영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반공 그 자체가 이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역설한다. 전쟁이 종식된 것이 아니기에 반공은 필요하지만, 그 자체가 이념이 되면 사람들을 가르치고 서로 대립하게 하며, 이로써 기존의 권력이 공고해질 뿐이라는 것을 김수영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까닭이다. 다만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 현실에서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그 또한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 김수영이 내적 갈등을 일으키던 지점이 여기에 있었음을 드라마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갈등은 4.19에서 이승만의 하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내는 것으로 그려진다.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밀셋개로 하자  
그 지긋지긋한 놈의 사진을 떼어서  
조용히 개굴창에 넣고  
썩어진 어제와 결별하자  
그놈의 동상이 선 곳에는  
민주주의의 첫 기둥을 세우고

쓰러진 성스러운 학생들의 웅장한  
기념탑을 세우자  
아아 어서어서 썩어 빠진 어제와 결별하자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밀싯개로 하자」 일부[6]

주목할 것은 그간 내레이터 혹은 드라마 속 인물의 목소리를 통해 음성으로 제시되었던 시가 이 장면에서는 문자로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드라마는 시를 음성으로 제시하고 고뇌하는 배우의 모습을 전면화하였다. 이를 통해서 시인의 내면을 충실하게 제시하고 그 고뇌와 고민의 흔적이 시인의 시세계에 녹아들었음을 자연스럽게도 효과적으로 보여주었다. 「채소밭 가에서」의 시구인 “기운을 주라”가 그 자신의 삶을 위한 목소리이자 당시 민중을 향한 목소리이며, 또한 생명력을 향한 신뢰의 표현임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던 것처럼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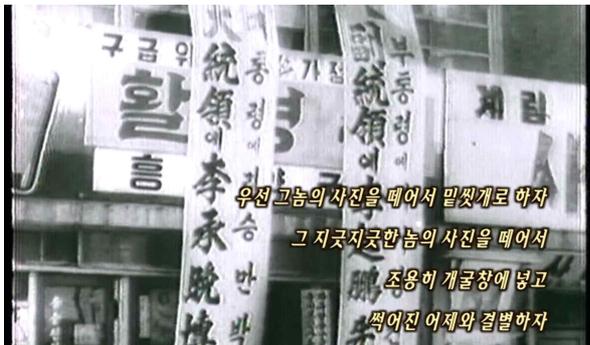


그림 2. 드라마 <명동백작>의 한 장면  
Figure 2. A scene in a drama <The Count of Myeong-dong>

그런데 이에 비해 이승만의 하야가 결정되고, 제시된 그의 시는 그 어떤 음성적 효과나 낭송도 없이 흑백 화면에서 문자로 제시된다. 4.19 혁명의 전개를 보여주는 당시의 흑백 사진을 보여주고, 이어 그의 시가 굵은 글씨로 화면에 표시된다. 화면은 시 전문을 천천히 스크롤하듯 제시하며 그와 함께 흑백 사진 속 4.19 혁명의 전개는 현실감각을 더한다. 마치 기록영화나 기록영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드라마는 이에 대해 의미를 설명하거나, 김수영 시의 문학적 가치에 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다.

김수영의 시세계에서 4.19 혁명이 억압된 주체의 해방을 통해 역사의 근원적 잠재성을 발견하는 과정이었음을

감안한다면,[7] 이는 드라마 <명동백작>이 4.19혁명과 김수영 시세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형상화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제시하기로 선택하였음을 시사한다. 즉, 4.19혁명이 김수영 시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설명하거나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 극화하기보다는, 기록사진과 시의 전문을 제시하는 절제된 표현 방식으로 무게감을 지키는 것이다. 이로써 김수영의 문학 작품에 녹아있는 사회에 대한 고뇌와 민중의 승리를 목격하였을 때의 희망은 더욱 현실적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온다. 그의 시가 사회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발화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발화되는 과정이 이 장면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내적 고뇌를 보여주는 장면들에서 제시되었던 「너를 잃고」나 「채소밭 가에서」와는 다른 어조와 “밀싯개”와 같은 걱정적 시어의 대비는 그를 「풀」의 시인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던 대중들에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제시하면서도, 대중들에게는 다소 비시적이거나 과도한 몰입으로 오해될 수 있는 시편들의 역사적 맥락을 설명한다. 김수영의 시세계가 내적 갈등을 거쳐 세상을 향해 발화하고 있었으며 그 희망과 가능성을 민중의 생명력에서 찾고 있었음을 서사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풀」과 같은 상징을 활용한 생명력의 시인으로만 인식되어 있는 김수영의 문학세계에 대한 폭넓은 인식을 만들었음을 것이다.

이어서 드라마는 김수영이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국가와 사회를 꿈꾸고 토론하는 장면들을 보여준다. 그들의 대사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지만, 대중의 생명력에 서부터 가능성을 발견하고 부단히 소통함으로써 활로를 모색하는 김수영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력이 넘쳐 보인다. 그가 가장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었던 시기였음을 보여주는 장면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장면들은 5.16 군사정변 이후 지식인들의 상실감을 역설적으로 예감하게 한다. 드라마 또한 군사정변과 함께 문인들의 죽음을 빠르게 제시하며 막을 내린다. 돌아오지 않는 김수영을 불안한 얼굴로 기다리는 김현경과 함께 드라마의 주요 시간선은 막을 내린다. 이로써 드라마는 김수영 시인의 시를 그의 내적 고뇌와 역사적 순간에 적절히 제시함으로써 그의 이미지를 현실과 문학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생명력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던 강렬한 시인으로 형상화한다. 이는 상징적이고도 지적인 언어로 사회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김수영 시인의

성취와 1960년대 한국문학의 맥락을 잘 보여준다.

### III. 드라마의 갈등 요소와 김수영 형상화

김수영의 삶은 역사적 사건과 개인적 생이 교차하는 순간을 보여준다. 전쟁기에는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으며, 4.19와 5.16을 거치며 민중과 생명력의 가능성을 노래하는 시편을 적었다. 게다가 전쟁으로 인해 외도했던 아내와 재결합하면서 애정과 분노라는 양가적인 감정을 안고 살아야했다. 이러한 그의 생애적 특성은 시인의 문학 세계에서도 그대로 표현된다. 드라마 <명동백작>이 1950년대 후반의 한국문학과 한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문체적 인물로서 김수영을 선택한 것은 이러한 까닭일 것이다. 그러므로 드라마는 김수영의 생애를 따라가는 한편으로 그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와 정치적 모순 등을 명동거리의 인물들을 통해 입체적으로 제시한다. 이를테면 당대 한국사회와 문학장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한 지점으로 명동이 선택되었다면, 시인과 문학, 그리고 세계의 문제에 대한 초점으로서 김수영이 선택된 것이다.

드라마가 전면화하는 김수영의 갈등은 크게 세 가지로 그려진다. 첫 번째는 드라마의 초반에 제시되는 아내와의 문제이다. 수용소에 수감된 김수영의 소식을 찾으려 부산으로 향했던 아내는 그녀를 돕던 김수영의 친구와 외도를 저지른다. 드라마는 김수영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과정을 극적으로 제시한다.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된 김수영이 제일 먼저 부산을 향해 김현경을 찾지만 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 그녀와 마주하는 방식이다. 이후로도 김수영과 김현경의 관계는 일종의 멜로드라마적인 연출로 설명된다. 김수영은 아내에게 재결합을 요청하지만, 김현경은 쉽사리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 이 와중에 수용소에서 김수영을 도운 간호사에 마음이 끌리는 장면이 제시되면서, 일종의 삼각관계의 묘한 긴장감과 애정의 향방에 대한 시청자의 궁금증을 자극한다. 이러한 김수영의 애정사는 시청자들의 관심을 김수영이라는 한 실존 인물이자 드라마 속 인물에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의 갈등구조는 동시대의 모더니즘 시인인 박인환과의 불화이다. 이 드라마에서는 그 불화의 원인을 명료하게 드러내지는 않으나, ‘센티멘탈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김수영의 모습에서 이들의 불화가 문학적 관점의

차이에 기인한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이 갈등은 김현경과의 갈등과 달리 비극으로 맺어지는데, 끝내 화해하지 못하고 박인환이 사망하는 까닭이다. 이로써 드라마는 김수영과 박인환의 애뜻한 관계에 대한 시청자들의 몰입을 더하는 한편으로, 김수영의 문학적 결벽증에 관해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3~4. 드라마 <명동백작>의 한 장면  
Figure 3~4. A scene in a drama <The Count of Myeong-dong>

드라마가 김수영을 중심으로 제시하는 마지막 갈등은 김수영의 내적 갈등으로서, ‘무엇을 쓸 것인가’와 관련한 문제이다. 이는 일부분 박인환과의 갈등과도 연결된 측면이 있는데, 세계에 관해 비판적으로 발언하는 시를 쓰는 김수영이 박인환의 시를 ‘센티멘탈리즘’으로 비판하게 되는 근거이기도 한 까닭이다. 김수영은 세계에 대해 어떠한 가능성을 노래할 것인가 끊임없이 고뇌한다. 반공이 국시인 사회에서 진정 노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고 그는 자신을 향해 되묻는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내적 갈등에 대한 해답처럼 4.19 혁명이 성공한다. 김수영이 생명력에 관해 노래하고, 민중의 힘을 신뢰하는 시를 쓸 수 있는 한 원동력이다. 드라마는 그의 내적 갈등과 4.19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겹쳐 보여주면서 김수영의 시와, 어린애처럼 기뻐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로써 드라마 <명동백작>은

김수영의 문학세계를 관통하는 힘과 그 힘을 노래하고자 하였던 의지를 지닌 시인의 형상을 구현한다. 드라마가 세 줄기의 갈등을 통해 보여주하고자 하였던 것은 세계와 타협하거나 아름다운 정조의 세계에 침잠하는 것이 아닌, 세계를 직시하고 부끄러워하며 한편으로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 시인의 형상이었다. 김수영은 이 드라마를 통해 민중의 자유를 위해 노래하는 의지와 시대적 양심을 지닌 시인으로서 형상화된다. 드라마의 갈등구조가 확장시절에 배웠던 시의 저자로만 인식하고 있을 대중들에게 시인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평을 또한 열어주었던 것이다.

#### IV. 결 론

본고는 2004년 EBS에서 방영되었던 드라마 <명동백작>에 나타난 김수영 시인의 형상을 분석함으로써 드라마가 영상과 서사를 통하여 김수영 시를 전달하고, 시인의 표상을 구성하는 전략을 검토하였다. 이 드라마는 당대의 문화사적 맥락과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한 사람의 시인이 내적 갈등을 시로 승화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수영 시인은 시대적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시를 통해 응전하는 시인으로서 형상화 되었다.

드라마 <명동백작>에서 김수영의 시는 크게 세 가지의 맥락 속에서 제시된다. 첫 번째는 해방기 그의 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으로, 전후의 문학장에까지 연결되는 문인들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그의 초기 시들이 제시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는 갈등의 한 요소인 박인환과의 관계가 부각된다. 두 번째는 그의 내적 갈등이 두드러질 때에 시를 통해 그의 내면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아내와 헤어진 직후에 「너를 잃고」가 제시되거나, 반공을 빌미로 독재권력을 이어가는 정치사회적 상황 속에서 무엇을 써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장면에서 「채소밭 가에서」가 제시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시인의 내적 고뇌와 함께 김수영 시의 성격을 시청자들로 하여금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4.19 혁명 직후에 그가 쓴 시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밀셋개로 하자」가 제시된 것처럼 현실 참여의 목소리를 내는 시를 당대의 기록사진과 함께 영상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는 시인의 내적 갈등이 역사적 전환의 와중에 어떠한 방식으로 표출되었는가를 무겁게

보여줌으로써 김수영 시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시청자의 이해를 높인다.

또한 드라마는 김수영의 시와 함께 갈등구조를 통하여 사회적 역사적 전환 속에서 괴로워하는 한편으로 끝까지 세계를 향해 목소리를 내었던 의지의 시인으로서 김수영을 형상화한다. 아내인 김현경과의 멜로드라마적 갈등이나 시인 박인환과의 반목은 드라마를 시청하는 대중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한편으로, 그의 삶과 시세계가 구축되는 과정을 잘 드러낸다. 이로써 이 드라마 속의 김수영은 아내를 사랑하는 한편으로 증오하는 평범한 생활인이자, 자신의 문학적 관념이 뚜렷한 시인이고, 시대적 문제에 발언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인이라는 복합적 인물로서 김수영을 그려낸다.

문학사에서 김수영은 지적인 언어 감각과 동시에 서정성을 지키면서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보여주는 시인으로 평가된다. 드라마 <명동백작>은 시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문학과 사회에 대한 고뇌를 효과적으로 그려낸다. 다만 그의 시의 개성으로 손꼽히는 지적 언어 감각과 시어의 상징성 대한 의미화는 다소 미진하다. 물론 이는 드라마라는 매체적 특성에 기인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처럼 드라마 <명동백작>은 김수영이라는 한 사람의 시인이 지닌 여러 면모를 다채로운 방향에서 입체적으로 포착해낸다. 또한 그의 시를 영상으로 제시함으로써 대중들로 하여금 그의 시세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시편들이 보여주는 고뇌의 깊이가 다시 시인의 삶과 이미지로 연결되도록 만들어 준다. 드라마가 만들어낸 김수영 시인의 형상은 고뇌하는 양심적인 시인이자, 시대적 비극 속에서 괴로워하며 당대의 사회를 살아가는 평범한 한 사람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영상매체가 문자 텍스트인 문학을 풍부화하는 한편으로 일반 시청자들의 이해와 해석의 가능성을 넓히는 한 유의미한 사례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Kwon, Young-min, *History of Korean Modern Literature*, Minumsa, 1993, p.272.
- [2] Moon, Hye-won, "Types and Features of Our Poems After the 4.19 Revolution", *History of Korean Modern Poetry*, So-myeong press, 2019, pp.216-220.
- [3] Son, Mi-young, "A Study on the Meaning of

Korean Literature in Video Media–Focused on the drama "The Count of Myeong-dong(2004)",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7 No4, pp.195-202, November 2021.

- [4] Hong, Seong-il, "<The Count of Myeongdong> and <Now Marronier> : Expectations and possibilities for EBS brand dramas," *Visual Culture* Vol. 10, pp.72-82, 2005.
- [5] Ki, Bok-im, "A Study of Jeon Hyerin's literary and narrative works", Master's thesi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y, 2021.
- [6] Kim, Soo-young, *A Complete Collection of Kim Soo-young*, Minumsa, 1981.
- [7] Yi, Hye-won, "Contemporaneity and Aesthetics of Interruption in Kim Soo-young's Poetry", *The Study of Modern Literature* Vol.53, pp.137-171, 2014.

※ 이 논문은 광운대학교 2022학년도 연구비로 지원되었음.
-----------------------------------